

억눌렸던 광주 여성 목소리 듣는다

광주여성가족재단 10주년 특별전 '여성:기쁨과 슬픔'

여가부 존립 기반 '평등' 주목 공감·소통 중점 4개 섹션 구성

광주 여성사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의 지속가능성과 그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의 10주년 특별전 '여성:기쁨과 슬픔' 전이다.

오는 3월 17일까지 재단 3층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재단 10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희망의 염원을 담았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아동·대안주자를 중심으로 폐지까지 논의되는 등 근본적인 존재 의의를 비롯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받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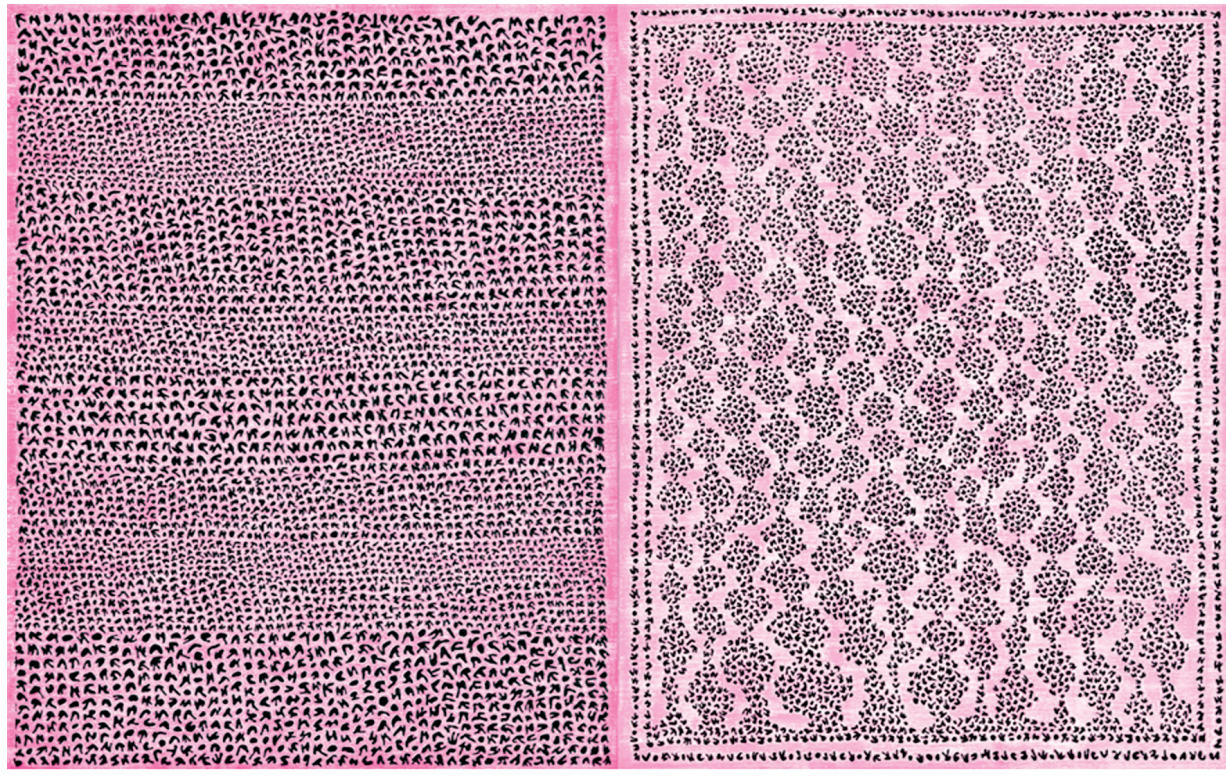
이에 이번 전시는 여성가족부의 존립 기반인 '평등'의 가치에 주목, 사회적 담론에 맞춘 여성사의 연구와 기획에 기초해 시민들로 하여금 가치에 공감하고 소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광주 여성 역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제1전시실 '광주 여성의 발자취'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4개 섹션으로 구성된 제2전시실은 여성을 둘러싼 혐오와 차별,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와 유동적으로 다가오는 미래 등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3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은 참여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3전시실에서는 강민지, 박유선 작가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있다.

지하철 안 성형 광고 전단지 속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진 한 여성의 사진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강민지 작가의 'Before&After'는 '달라진 여성의 외모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라는 궁금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강지수 작 '서정의 자리' 중 일부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한미경 작 '초년, 중년, 노년'

강 작가는 목숨을 건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전과 이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박유선 작가는 'BLINDNESS'를 통해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허상과 프레임에 대해 질문한다. 이 짧은 단편이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를 담아낸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압도적인 크기의 분홍색 작품이 시선을 잡아끈다. 그 주

인공은 자궁을 모티브로 한 강지수 작가의 '성소-서정의 자리'. 강 작가는 캔버스 위에 붓을 사용해 물감을 지우고 덮고 긁어낸 모든 흔적들을 생명을 나타내는 기호이자 시간의 궤적이라고 명명한다. 사라지고 지워지는 것은 과거를, 새롭게 나타나는 색은 현재다. 강 작가는 "자궁은 어머니의 상징이자 개체에 영양을 제공하는 생명의 장소며, 다양한 정서와 감정의 파편들이 형성되는 곳"이라며 "무엇보다 자궁

은 돌아갈 근원의 심성을 잊지 않게 하는 서정의 자리"라고 본인의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자궁의 의미를 설명한다.

한미경 작가는 '여성의 시대적 일기장'을 주제로 초·중·노년의 모습을 오브제를 통해 표현한다.

한 작가는 소소한 일상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를 각기 다른 세대의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하며 삶의 희로애락을 전달한다.

박희연 작가는 '돌아봄, 돌봄'을 주제로 '노크:안녕을 묻는다'와 '노린발 노린 손' 등 두 개의 영상을 선보인다. 박 작가는 여러 상황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의 소리를 가로막았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찾아 허물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음을 환기시키며 작품을 통해 그 움직임들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한편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람이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 전시를 영상으로도 기록, 재단 유튜브 및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오지현 기자

극단 시민 정기공연 '병원'

오늘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한 나절이 기뻛도록 가슴을 앓는다는/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운동주의 시 '병원'의 한 구절이다.

운동주의 시 '병원'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연극무대가 펼쳐진다.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극단 시민 정기공연 '병원'이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일제 치하의 아픔을 가진 '환자'였던 사대를 산 운동주의 시인의 '병원'이라는 시에서 시작된

이번 작품은 세상이라는 병원속에서 인생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환자들을 응원하는 내용이다.

연극은 주인공 '나'가 지하철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나'가 바라보는 지하철 풍경은 비슷하게 흘러간다. 어느날 '나'는 한 여자를 보게된다.

배우 김영택·신은주·장도영·장주혜·조정훈·이재룡·장지선·전근호등이 무대에 오른다. 연출감독 김민호, 작·연출 장원, 무대감독 최상문, 조연출 박주영, 안무감독 채효진, 음악감독 최성인, 조명감독 신지호 등이 참여한다.

관람료 1만원. 문의 010-2080-9829.

전남도립미술관, 전시연계 활동지 배부

신청 '어린이 아틀리에'

전남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작한 어린이 활동지를 올해도 제공한다.

미술관은 지난해부터 미술관의 사회문화교육 기능 확대를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연계 활동지 배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활동지는 체험과 참여 중심의 예술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감성 개발, 표현 능력 신장 등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올해 활동지는 현재 전시 중인 작품전 '태양에서 떠나올 때'의 기획 의도·주제와 연계해 '색'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활동은 그림 그리기·종이 찢어 붙이기 등을 통해 작품에 표현할 색을 탐구하고, 감정과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색과 형태를 조합하는 창작 활동에 초점을 뒀다.

활동지 배부 및 활동은 미술관 지하 1층 '어린이 아틀리에'에서 진행되며, 오는 3월 27일까지 만 6세에서 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청자에게만 배부된다. 수량은 1인 1부를 원칙으로 1일 총 50개 한정되며, 색연필·크레파스 등 기본 미술도구는 미술관에서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의 경우 '어린이 아틀리에'에 신청 가능하며, 10인 이상 단체는 전화를 통해 사전접수해야 한다. 단체 예약자는 별도의 활동지 안내 교육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가정 학습자는 활동지 활용 방법을 다룬 교육용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영상은 전남도립미술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남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지를 통해 전시를 아이들이 전시를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립국악단 신규단원 공개 모집

12~18일 원서 접수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오는 18일까지 전남도립국악단을 이끌어갈 신규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단원은 사물 상임 1명, 사무·기획 비상임 1명 등 2개 분야 총 2명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8세 이상,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이로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든 응시할 수 있다. 전남도립국악단원 복무규정에 의거해 상근이 가능해야 하며, 기타 결격사유 등에

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응시원서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남도소리유티브 공연예술진흥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합격자는 서류와 실기, 면접전형 등을 통해 선발될 계획이다. 사무·기획 분야는 서류 및 면접 전형만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8일 전남문화재단과 전남도립국악단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며, 신규단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누리집 채용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hotelthestar.com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HOTEL THE STAR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천년의빛 영광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